

PA-102

충남지역 쌀가루 가공용 품종 이앙시기에 따른 수량 및 품질윤여태^{1*}, 정종태¹, 최현구¹, 이동재¹, 박인희¹¹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서론]**

연간 1인당 쌀소비량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61kg로 2009년 75.8kg 대비 10년 만에 15kg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쌀소비 촉진을 위해 쌀을 이용한 신제품과 기능성 벼 품종,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간재인 쌀가루의 대량 생산-유통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쌀가루 가공용 품종에 대한 품종선발 및 재배기술 확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지역별 쌀가루 전용품종을 선발하고 재배법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충남지역에서 쌀가루 전용 품종의 수량성과 적정 이앙시기 구명을 위해 예산과 논산의 시험포장에서 설갱 등 4품종을 예산은 5월 20일부터 10일 간격으로 6월 30일까지, 논산은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5~7주씩 순이앙하였고 시비량은 N-P-K=9-4.5-5.7kg/10a 로 처리하였다. 수확은 출수기로부터 적산온도 1,100°C가 되는 날 하였으며,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등 조사항목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예산지역에서 쌀가루 가공용 품종들을 이앙시기에 따라 재배시험 한 결과, 이앙시기에 따라 수발아 발생비율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설갱을 제외한 모든 품종이 이앙시기가 늦을수록 수발아 비율이 낮아졌다. 신길 품종은 모든 이앙시기에서 수발아 발생비율이 가장 낮았고 쌀수량도 높아 예산지역에서 쌀가루 원료곡 최대생산을 위한 적합 품종으로 생각되며, 적어도 6월 20일 전에 이앙을 해야 수량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지역에서도 이앙시기에 따라 수발아 발생비율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신길, 전주614, 전주615는 이앙시기가 늦을수록 수발아 비율이 낮아졌고 설갱은 높아졌으며 한가루는 6월 10일 이앙까지는 감소하다 6월 20일에서 증가하였다. 신길 품종은 모든 이앙시기에서 수발아 발생비율이 가장 낮았고 쌀수량도 높아 논산지역에서 쌀가루 원료곡 최대생산을 위한 적합 품종으로 생각되며, 적어도 6월 10일 전에 이앙을 해야 수량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모작이나 못자리 실패 등으로 인해 이앙시기가 6월 10일 이후가 될 경우 전주614와 전주615를 이앙하면 수발아 비율은 약 14% 정도이면서 수량성이 양호하였고 한가루 품종은 수발아 비율과 쌀수량이 시험품종 중 가장 낮아 가공특성이 특별히 좋지 않다면 재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사업(과제번호: PJ0129602019)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Tel. 041-635-6052, E-mail. yotai@korea.kr